

6년의 의과대학 교육을 마치고

김 태 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연세의학교육」지에 글을 내달라는 의학교육학과 선생님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친구와 후배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중 몇가지만 추려서 6년동안 연세대학교 의예과/의과 과정에 따라 적어볼까 합니다.

1. 예 과

많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6년 중 가장 아쉬웠던 시기는 예과의 2년이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본과 4년과정의 준비기간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의대에서 배울 수 없는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의 예과 교육을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나 저희 이전의 선배님들의 예과 교육은 그 어느 쪽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예과 과목에는 본과교육과 연계가 되지 않는 과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기초과학의 이수는 필요하겠지만, 정작 저희가 배웠던 것은 의학을 배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인가 의문이 항상 들어왔습니다.

예과 과정의 물리화학때 수업시간에 이과대교수님이 칠판에 Schrödinger's equation을 써놓고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예과때 배운 물리화학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때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던 대다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꼭 의학자가 되기 위해 모두가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과목으로 학기당 21학점이 꼭 차있다보니, 정작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다른 과의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이 지금 예과생들은 저희와는 달리 불필요한 과목이 많이 줄고, 타과과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예과생들도 본과교육과 예과교육의 연계에 대해

서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의과대학 선생님들이 예과 교육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그냥 놀다가 지나는 2년이 아니라 본과 4년을 예비할 수 있는 예과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본과 교실 수업

연세대학교 본교 정문이 아닌 의과대학 정문을 통해 학교를 다닌다는 뿌듯함을 가진 것도 잠시였고, 하루에 엄청나게 진행하는 수업진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험들, 매 시험마다 공부해야 할 엄청난 시험범위... 이것들로 점점 생각하게 될 여유를 잃고 아침이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연습, 복습은 포기하게 되고 바로 닥칠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이미 자정을 넘어 있는 기계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심장은 주기적인 박동으로 피를 짜보내야만 하나, 그냥 심장박동 없이 일정한 압력으로 죽죽 짜주면 cerebral aneurysm이 터질 일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순환계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신경외과 수업을 들으면서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험이 다음 주인데 도서관에서 생리학책을 뒤져보고 있었다면 아마 의과대학에서 낙오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의과대학의 교육이 단순 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응용이 더 중요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인적인 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반복 암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본과의 교실수업에 대해 아쉬웠던 다른 하나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임상수업의 경우에는 시험을 친 다음 시험지를 바로 걷어가서 자신이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틀렸었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시험문제와 답을 공개해 주신다면, 시험을 보는 것이 단순한 학생평가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며 학업 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시험지는 이후에 수업을 듣게 될 그 후배들에게도 좋은 학습자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문제를 주면 그것만 보고 공부를 안 한다고 우려하시지만, 시험지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수업의 복습과 참고서를 많이 참조하게 되는 등, 학습이 효율적으로 되면서도 학습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친구들이 시험지가 공개되는 4학년 임종시험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이며,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그룹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본과 실습

본과 실습에 들어오면서부터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환자를 보는 실습을 하며 그동안 찾아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대에서 가장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실습체계에 대해서는 저를 포

함한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교육의 수준에 대한 교육목표에 대해 실제 학생 실습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이 아시는 경우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받게 되는 실습 교육의 질은 레지던트 선생님의 능력이나 학생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 편차가 심하였습니다. 물론,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아서 학생들을 일일이 챙겨주시기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겠기에, 교수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실습 나오는 학생들이 꼭 필요한 수기나 배워야 할 내용들을 적절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빠지지 않고 잘 배우고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편, 실습에 들어와서는 떠먹이기 교육보다는 학생 자신이 찾아서 하는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능력은 학생이 스스로 길러야 하며, 선생님은 다만 환경을 제공할 뿐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족보들을 반복하며 암기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던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 실습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습기간을 보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질책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암기만 시키면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왜 생각하면서 공부할 줄 모른다고 야단 치냐’고 불메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단순 주입식의 교실내 수업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PBL과 같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실습 때의 교육의 질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교실수업만을 받고 실습에 들어가게 될 지금의 본과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너그러움을 갖고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실습을 돌면서 나왔던 불만 중에는, 실습 스케줄의 비효율성, 학생들의 practice 참여에의 제한, 마이너과목의 실습선택에 대한 불만, 동일한 수기나 수술의 반복된 참가에 대한 불만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들은 학기 중의 학생실습 평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선생님들이 개선해 주시기도 하였던 사항들이어서 이에 대해서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실습중간에 한 실습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주시고, 더 나은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4. 졸업을 하면서

제가 4학년 대표를 맡으면서 성적이 낮은 편인 과 친구들의 취업문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학교측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 그룹에 대한 배려가 국가시험 준비기간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몇몇 시험 족보만 열심히 외우면 통과할 수 있는 필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다른 부문들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없었

습니다. 따라서 최저 수준을 알 수 없는 학생들의 진급이 필기시험 평가만으로 진급이 이루어졌었고, 이들 중 일부는 KMA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교육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존재하게 될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배려는 낮은 점수를 주어서 학생 스스로가 1년을 다시 다니도록 하거나 낙제를 시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교육

의 전반적인 질의 상승뿐만 아니라, 하위 그룹의 학생들도 학교에서 보장하는 일정한 수준 학습성취도를 갖고 졸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6년 동안 의과대학 교육을 마치고 느꼈던 점과 바라는 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에 앞으로 연세 의학교육을 받고 앞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더 출중한 실력으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믿습니다.